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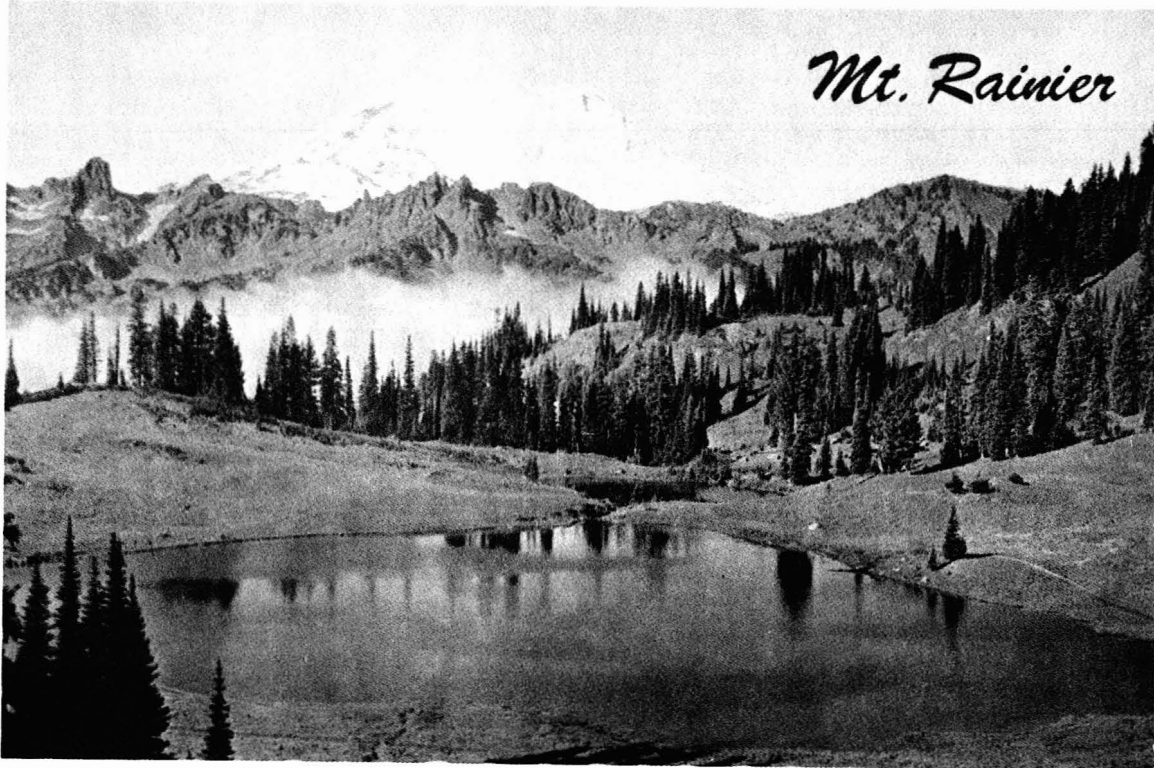
Dong Un Kang, Publisher
M. W. Moon, Editor

Phone: (206) 767-7934

Vol. 10, No. 5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November 1981



구독신청 및 광고 문의는 (206) 767-7934



EAST-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IATA-ATC 공인

동서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367-1935 밤

— 영 업 안 내 —

-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 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국내 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댁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표 이 영 호



정기 총회 모집 공고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는 회칙 제 9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시 : 1981년 11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 보랜중학교 강당
(WEST SEATTLE DEBRIDGE WAY)
- 안건 : 재정보고, 사업보고, 회칙개정사항, 회장단 및 이사선거

1981년 11월 5일

시애틀 - 워싱턴주 한 인 회 회 장 강 동 언

재 정 소 식
(10월 15일 현재)

- 한인회비 -

1. 박영희	\$15.00
2. 서석현	\$20.00
3. 김춘동	\$15.00
4. 평양할머니	\$10.00
5. 당병식	\$15.00
6. 오준걸	\$50.00

- 건축기금 -

경희대학동문회	\$200.00
---------	----------

- 체육기금 -

임병식	\$20.00
-----	---------

- 행사기금 -

1. 허남일	\$50.00
2. 김청작	\$50.00
3. 이점택	\$25.00
4. 사보이식당	\$50.00
5. 지장한	\$20.00
6. 이영호	\$41.50
7. 김정부	\$200.00

* 금년도 한인회에 여러가지 기금을 보내주신분중에 주소를 이신하신분은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일경에는 여러분이 내신 기금의 영수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일반기금 -

1. 한민섭	\$25.00
2. 김정부	\$25.00
3. 서봉기	\$25.00
4. 김덕황	\$25.00
5. 김현길	\$25.00
6. 문유기	\$25.00
7. 임광희	\$25.00
8. 엄명보	\$25.00

* 한인회 발전을 위해 각종기금을 보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인회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회비납부를 못하신분은 회비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회비는 1년 1회이며, 개인당 \$10.00이고 가족은 \$15.00입니다.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전화번호 : (206) 767-7934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알 립 니 다

본 한인회가 매년 연말송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아리랑의 밤"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되었오니 교포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로서 발전하고있는 우리 교포사회를 축하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의 행사가 되도록 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1981년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장 소 : South Center 내, 더블추리 프라자호텔 1층
- 참가비 : 일인당 \$15.00 (저녁식사 제공)

* 노래 및 자랑할수 있는 역흥을 하실분을 환영하오며, 사전에 본 한인회에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1981년 11월 5일

시애틀 - 와싱턴주 한 인 회

글 이 형 상

"종"이라면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 저
 광복의 1945년, 왜놈 쇠사슬에서 풀려나던
 그 때, 삼천리 강산을 진동했던 "자유의
 종을 연상하는 분도 계실것이요, 하루의
 고된 일을 벌판에서 끝내고 집으로 올 시간
 멀리 교회당에서 울려오는 은은한 종소이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알뜰한 부부의 "저녁
 종(만종)"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것이다.
 또 전 국민의 소원이 조국통일을 기원 하
 면서도 복많은 한 해가 되어지길 기도하는
 송년의 보신각 종, 서울 장안을 울려퍼지는
 자정의 이 종소리를 잊지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요, 한 민족의 뛰어난 두뇌와 문화
 민족임을 증명하는 유산이기도 한 우리의
 산 새산, 애뜻한 사연을 지닌 봉덕사의
 에밀레 종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것이다.
 조국신라의 번성과 평화를 불교에 의지한
 나머지, 종을 울리므로써 모든 소망을
 이루려고 만들어진 이 "에밀레 종", 종의
 완성을 위해 서슴없이 어린 딸을 이글 끓는
 가마솥에 넣고 종의 완성을 본 우리 한국
 어머니의 상, 종울릴 때 마다 "에밀레
 (엄마 -)"하고 울려오는 가장 끓는 어린
 딸의 목소리 - . 우리집 꼬마 여식을 종
 (Bell)하면 신난다. 여타의 이야기나
 역사적 배경은 모르고 오직 크리스마스만

생각나니까.

하여튼, 종에대한 역사나 사연은 한이
 없다. 이젠 본인이 말하고자하는 다른
 각도에서의 "종"에 대하여 생각하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아침, 만 백성
 머리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함께
 내려주옵소서 - 경건한 기도와 함께
 별빛 총총한 이른 새벽 교회당의 종
 술을 잡아당기는 박집사, 그러나 그
 날이 바로 저 소곡강산을 피바디로 물
 들인, 훗날의 유 이오가 될 줄은 박집사
 도 몰랐다.

"아부님, 이북 공산국이 일루, 서울루
 쳐들어온다 말이어요" 고서리 손을 내밀고
 "하야부지"를 부르는 손자 상은 이를 얹은
 머느리 말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는 박집사. —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 "상은이만 잘
 보고 있어. 믿음은 굳게 가지구,
 이럴때수록 주님을 굳게 의지해야한다."
 젊은이들을 태운 트럭들이 영청으로 달
 린다. 모든 젊은이들이 아들 요섭으로
 보인다. 요섭이 녀석이 살아 있으면 이
 젊은이들과 마주쳐 싸우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싸우다 총탄에 쓰러졌는지도
 모른다. — 주여! 요섭이 녀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짓는 여리석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

"지금 이 어느때데 구경을 하고있소.
 괴뢰군이 남침을 시작했소. 빨리 피란
 길 준비나 하시오." 짐작고 의젓했던
 이목사가 아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경련을 이르키는 이목사를 보고 우스워
 졌다. "아니, 피란이라뇨? 지금 국군
 들이 자주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피란 ..."
 "아니 여보! 괴뢰군한테 국군이 당해 낼
 줄 아오? 박잡사, 당신은 요섭이가 빨갱
 이로 가 있으니까 오히려 환영하는 셈
 이구료. 응?" 예배후 찬양대에서 온
 은애가 "어떻게하죠, 아버지?" "어떻
 하긴, 주님만을 더 열심히 의지할 뿐
 이지. " "오빠가 올 테지" 반말로
 귀애다 소곤댄다. "안 숙었으면 올 테지"
 "올 거야. 오빠"
 외아들, 학병으로 갔다 소식없어 단념
 하면서도 기도하고 고대했던 보람으로
 돌아온 요섭, 그러나, 중국 연안으로
 도망했던 아들은 이미 마르크스 레닌에
 미쳐, 교회도, 아버지도, 누이도 모르는
 공산주의의 아들이었다. 외아들 기다리다
 환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도 모르고
 마침내 얼북했다. 얼북했다. 이 아들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싶음 심정
 뿐이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다 밤새
 짐을챙긴 이 목사, 날이 밝기가 바쁘게
 "이럴때수록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합
 니다"며 향인들께 성경을 파는 박집사

이십 칠일 국군 트럭이 아래로 달린다.
 피란짐들이 많다. 팔리지 않는 성경을
 그냥 피란짐에 끼워넣어 주고 오는 박
 집사, 피란가라는 목사께 "목사님,
 평안히 피란하고 오십시오. 저는 이
 성전을 지키렵니다." "박집사는 요섭
 이를 믿고 하는 소리 같소만, 과히
 믿을 만한게 못 될거요." "목사님! 제가
 요섭이를 믿고 여기에 있겠다는 생각을
 손톱만큼이라도 한다면 천벌을 받게옵
 니다. — 중략 — 다만 제가 어릴때부터
 자라온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조그만 지이프차에 중요한
 차례로 차 폭대기랑, 앞에랑 달고 언뜻
 건만 청기짐의 반에 반도 못 실어 "나
 하나 덜 타면 그만큼 짐을 더 실을 수
 있잖아요. 이 짐들은 어떻게 버려요."
 짐과 함께 남겠다는 부인, 군정청 통역
 으로 다닐때 얻은 지이프가 더 컸으면
 했다. 기어이 혼자 떠났다. 이십 팔일
 새벽, 폭우속에 생생 달리는 차소리,
 아우성소리, 아비규환의 서울거리, 무릎
 꿇고 날이 새 때까지 예배당에서 기도드
 리는 박집사, 큰 거리마다 지축 울리며
 굴러오는 소련제 탱크들 탱크 기
 로 국군을 맞이했던 시민들은 어느새
 붉은 기로 인민군을 맞으며, 만세를
 외친다. 이목사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도에서의 고독감, 빨간 완장

우리 건설

1.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공사
2. 내부 수리 일체
3. 식당, 상점, 등 모든 내부 시설 일체
4. Landscaping, Paint, Carpet, Cabinet 등

본 우리 건설은 위싱턴 주 정부 인가 General Contractor로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완벽한 기술로 특별 개업 기념 봉사코저 하오니 대소를 막론하고 연락 주시면 무료 견적으로 봉사 하겠습니다

전화 ;

(206) 367-4553 유 창 도

한 청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온다.
"누구시오?" "인민위원회에서 교회당을 쓰기로 했소"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절박감과 기쁨. 잡사게 기록하며 "예배당을 무엇으로 알고 한 소린지 모르지만 내 놓을 수 없소. 예배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요. 인민위원회가 아닌 더한거라도 들어 올 수 없소." "저기, 영웅한 이민 군의 진격이 보지 않소? 정신을 바짝 차리 란 말야." "중소, 교회당을 인민위원회로 쓰기위한 영웅한 인민군이라면 탱크로 니를 넘어뜨리고서 점령하시오." 한치도 양보 않는 작달막한 노인의 노기, 서리찬 젊은 이들과의 눈싸움, 예배당에 꽂혀 앉아 - 주여! 이 늙은 종에게 성전을 굳게 지켜 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
거리엔 반공분자를 차에 싣고 군중들 앞에서 총대로 마구 때리고, 뒷골목에 서는 동회장이 총살, 청년간부가 맞아서... 박집사는 예배당문을 걸어 은애, 먹느리와 함께 방안에서 성경만잡고 - "최 장노님이 붙잡혀 갔대요." 이 목사 부인이 부들 부들 떠다. 유명한 사상 검사 최장노님, 이때 담을 뛰어넘고 들어오는 시커먼사내, 눈에 노기편 박집사, "아버님, 그냥 계세요." 은애가 붙잡는다. "조심히세요. 아부님" 먹느리가. "엄력마, 상은이를 울리지 마" 막당에는 인민군, 시퍼런

복장에 따발총을 맨 청년이다. "아버지 -" 눈을 닦고 또 보는 박집사, 요섭이다. 눈이, 코가, 입이 요섭이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훌륭한 용사가 되어 왔읍니다." 반가움이 앞서려던 감정에 찬물을 끼얹는다. "오빠!" 맨발로 뛰어나온 은애. "은애야!" 오누이는 덩싹 껴안는다. 판자 담 안에서 눈물을 참고 섰는 아내에게로 천천히 다가오는 요섭, 상은이를 안은 요섭께 "오빠가시고 반년만에 난 상은이야" 상은이 기겁하고 온다. 겁에질려
싱글 거리는 이목사부인, "아니, 참 몰라 보겠네. 언제나 느름하고 착하시지" "안녕하셨읍니까, 사모님? 조금도 늙지 않았읍니다." "들어가요. 난 오빠가 올 줄 알았어" "내무서, 여기의 경찰서, 치안유지회의가 연속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란건 절대 비밀이야. 아버지 다시 와 뵙겠습니다." 미끄럼대 뒤에서 요섭 차림의 사내가 경례를 벌이고 따른다. (- 자식아닌, 내 믿음의 원수. - 설사 자식놈이 내 믿음의 원수일망정, 주여!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시바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옛날 어릴때 처럼 주님 앞에 무릎꿇고 두손모아 예배 들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자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 박집사 감은 눈에서 눈물이 새어나온다.

이목사 부인의 협조로 저녁상이 그득하다. "네가 기도해라"는 박집사말에 폭풍우속에 숨막히는 심정들, "당신이 대신해 주오" 목매인 소리로 먹느리가 대신한다. 잃었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화제가 전쟁으로 이르자 요섭은 얼을 띤다. 대한민국의 목적을 —, 김일성 장군의 통치 아래 조국은 통일되고 인민들은 행복을... 아무도 때꾸 하지 않는다. 조용히 상을 물린 박집사 "네 말이 다 옳다"고 하자. 그래, 너는 애미가 기도하라는 말을 왜 기억해야 했느냐? 공산주의에서는 기도도 못하게 하더냐?" "아버지, 저는 약침에도 내 손으로 사람을 셋 죽였습니다. 바로 이 총으로, 그러고서 어떻게 기도를 — 놀란 박집사는 벌떡 일어섰다. "이놈 썩 나가거라." 일지가 들어보지 못했던 박집사의 호롱, 사지는 벌벌떨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약질 반동분자들을 숙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자 과업이니깐요." 태연한 요섭, 아버지의 노여움을 코방귀감도 되지 못한다. "여러 말 말고 내집에서 썩 나가." 찌르릉 울리는 고함, 벌떡 일어선 요섭, "가지요." 허지만 아버지는 한 평생 그 부르짖음의 종 노릇만 해 오시구두 아직 모자라서 — "닥쳐라!"

이놈! 나는 사람의 종 노릇 한 기억은 없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을 뿐이지" "무엇이라구요? 일제때는 일제의 주구로 총성을 당하고, 오늘은 미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의 종 이되어 —" "그래도 닥치지 못할까." 어디서 성직자를 함부로, 개종 이는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씻기셨어. 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힘 힘어 감격으로 즐겁게 봉사했을 뿐이야." "아버지의 눈물은 확실히 송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도취, 나니 자기 기만에서 오는 미치광이의 희열입니다." "어?어? 네 이놈! 이제는 애미를 미치광이라구?...!" "아버지, 오빠" 은애가 가로막는다. "평생기약 장로 한 번 못하고 환관이 되면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장로? 하 하 하 하 — 미친듯이 큰 소리로 웃고 나는 박집사로 평생 늙어 다시없는 영광이다. 집사로도 과하지, 나는 종지기만으로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종지기만으로도 너무 과하다." "그러기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 우리를 뺄 수 없이 골수에 박힌 광신자!" "네 이놈!" 팔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은애, 아네, 이목사부인에 밀려 구둑소리 덜컹이며 사라진다. 박집사는 밤색 애매당에서 기도드린다. 날이 밝자 빨간 완장의

성년 서넛을 앞세우고 일 에일곡된 인민군 복장의 소년이 들어닥친다. "민주청년동맹"이라고 쓴 붉은 완장을 두른 청년, 교회 찬양대원, 유년주일학교선생, 모범 청년 윤 회철이 은애를 찾는 다. "아니, 은애동무는 책망이 되었는데 품 짝얇고 — 오늘부터 여성 동맹으로 나오시오." 명령이다. 다음주일 새벽, 우난히 거룩한 역운을 끝막 울려퍼시는 종소리 —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서울 장안을 골고루 맡강게 씻어주는듯 —. 큰소리로 찬송가에 맞춰 종을 울린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령기되시니 —" 넘치는 기쁨을 함을 수 없다. 더 신나게 더 우렁차게 퍼져나간다. 찬송가 소리도, 종소리도 울음으로 변한다. "엉엉" 울음소리 —. 총만한 은혜에 겨운 오열. 무엇이 팔을 잡는다. "누구시오? 누가 내 은혜를 막는 거요?" 내무서 복장의 젊은이, "종을 치지 말란말야!" "무엇이" 함박 눈물에 빛나는 얼굴. "서장동무의 명령이요. 물론 우리 인민공화국은 신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방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남조선이 완전 해방될 때까지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한단 말이요."

오후 2시정각, 교역자 회의, 찌기없는 얼굴에 노오타이 샵스 걸친 플보코의 목사들이 모여든다. 거룩한 모임이 모임

이 교역자회의다. 전후무후의 회의다. 기도인도가 있었다. "....영웅적인 전투가 하루속히 승리로 끝나며..." 박집사눈을 번쩍 켜다. 계속되는 기도는 인민군의 승리를 축원했다. 총대를 맨 강단 양 옆의 인민군. 이가 같린다. 회의 의지는 인민군 환영대회권이다. — 신교의 자유보장을 위한 결의라도 할 것으로 알았는데 —. 더욱 놀란것은 내노라는 목사님들, 거두들이 한 마디의 반대도 없는것이다. "그러면 인민군 환영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소." 모두 "예"하고 대답하시요 "예..." 우렁차다. — 이 약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와 용서하여 주옵소서 —. 다음은 날자결정, 가장 거물급의 대머리 민목사가 다음주일 오후 2시로 재의했다. 까만 양복의 젊은 목사가 일어섰다. "수일은 되도록 피합시다. 주일날 교인들을 동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올소" 박집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러자, 그 대머리 목사 "교인들 동원은 주일이 제일 좋습니다. 당국에 대해 진회 절충을 위해 부득이 합니다. 교회가 은혜스럽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의장, 저는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 자격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말로 해서 주일날 행사에 반대합니다. 일제때, 신사

참배를 할 때는 교회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지금 또 교인들을 기만하려고 합니까? 당신네 목자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이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것은 계명세월에만 지키는 계명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에 용감하십시오. 교회당 문을 열어놓고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장내가 어수선, 소란해진다. "박집사님!" 잘 아는 김목사다, 손을 잡아 앉힌다. 귀에 대고 소곤댄다. "박집사님, 지혜는 배과 같이 하라지 않습니까? 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외 발언자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발언자권없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예" 하고 대답하십시오. "예 - "가 붙어진다. 회의 끝났다. "동무 좀 감사다" 퍼런 복장의 내무서원이 수갑을 채운다. "저 -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오인인데 용서 해주세요. 다시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목사다. "안 되어." 우리의 과언 방해반동은 용서못합니다. 가..... 아무 말 못한다. "아부님!" 빨래하던 먹느리, "왜 이리세요. 우리 아부님 예수 믿는 것 외에 아무 죄도 없어요. 내주세요." "비켜!" 떼밀럭 쓰러져 소리높혀온다. 눈시울 뜨거워진 박집사, 아들 없는 동안

같은 고초 겪으며 시아버지 심긴 효부, "애" 염력 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상은이 울리지 마." 은애는 역성동맹에 가고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력니 생각하니 상은이를 한번 더 보고 싶었으나 - 찌이프에 떼밀럭 내무성 "서장실"이라 패 붙은 곳으로 갔다. "반동을 잡아 왔습니다." 서장이 책상에서 얼굴을 들었다. 박집사는 깜짝 놀랐다. 상대편은 더욱 놀랐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박집사를 노려본다. "서장동무, 오늘 교역자 회의에서 이 반동 영감이 방해를 했습니다. 수일날 인민군 환영에 절대 반대한다구요." "음, 알았어. 두고 나가." 참 무슨 부자간의 운명인가? 요섭이 친히 아버지 수갑을 풀고 의자를 내놓는다. 묵묵히 서있는 박집사. "창총단에 제일 좋은 양육을 접수해 봤습니다. 반동의 거물이 살던 집인데 오늘 밤으로 이사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거구 계시면 제 인장이 - " "반동 애비와 같은 집에서 어떻게 한집에서 - " "아버지, 고집피우지 마세요. 우리사이의 사상의 담은 하루 이틀에 헤어낼 수 없지만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 조국 노선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닥쳐라! 누구를 보고 이놈! 성전을 지키기 위해 피란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야. 교회를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야! 죽일테냐, 살릴테냐! 어서 처리해라."

"아버지! 아버지의 그 아편을 빼기까지 저는 한사코 투쟁하겠습니다." "오냐! 나는 너이기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인간의 힘이 큰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가 두고보자!" 밤에 온 찌이프 차로 먹느리와 상은이가 떠났다. 은애는 혼자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고 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은애 "그, 운동무사상에 철저히구, 그전부터 비밀당원이었대요, 우리가 얼마나 반동이었던가 깨달아지곤 해요. 운동무, 아마 나하고 결혼하게 될 거예요." 기가 막힌 박집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거니 생각했다. 부디 하나님은 해가 자녀들 머리위에서 떠나지 마시도록 지도할 뿐이다. 칠월하순, 유엔군 공습이 심해진다. 심한 폭격으로 폭사하는 사람들, 중요한 기관에는 실재없이 폭탄을..., 그러는 중 박집사의 환갑날. 은애, 먹느리, 이목사부인의 손위로 저녁상을 받는다. 애배당 종의 줄도 끊겼다. 삼십여년 종을 지켜온 종이였다. 종을 울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앞에 살아있지 못하는 자신을 느껴야했다. 저녁 시작무렵 찌이프차로 요섭이 왔다. 이목사부인 기도로 식사가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말이 없다. 밖에서 차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났다. 미당에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군인이 있다. "아니, 말도없이 무얼가다

부리는 거요?" "이런 쌍 간나야새끼! 탄약이야! 공습 때문에 교회당에 갖다 놓는 거야." "탄약? 여기는 성전지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탄약이 당한 소리오. 이서 심고 -" "무엇이 이반동이, 비키지 못해?" 떼밀럭다 다시 일어서며 "여기는 성전이야! 어림도 없어, 어디다 함부로." "따라라" 차 위의 군인이 따발총을 쏘았다. "성전 트럭에서 감사하게도... 주여,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말았다. 은애와 먹느리가 피투성이 시체를 끌어 안았다. 다음순간 다시 따발총 소리가 드룩! 드룩! 두 군인이 쓰러졌다. 따발총을 버린 요섭, 아버지 시체를 안고痛哭했다. "아버지, 아버지! 애배당 옆에다 묻고 평지처럼 덮었다. 무릎 꿇어 엎디어 "하나님! 당신의 충실한 종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오래말랐던 요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임시로 가설된 인도교를 건너서 찌이프차는 남으로 달렸다. 실재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없이 요섭은; "... 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 이글은 어느 저명 작가가 1959년에 발표하신 단편(사도전서(使徒傳書)의 요약이다. 작가의 의도한 바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했으나 어쩔지 모르겠다. 어쨌든 본인은 이글에서 두 형의 종을

보았다. 한 사람은 창조주 예수의 종
이요,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종이다. 어떤 사람은 두 광신자(미치
광이)라고 하나 본인은 종(노예)이라고
하고싶다. 물론 잊혀져가는 저 피비린내
나는 조국의 육.이오도 다시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종까지는
안 되어라도 종에 가까운 봉사, 헌신의
생활은 해야되지 않을까? 내 자식, 처,
다시말해 가족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생활, 내 이웃, 내 동포, 내가사는 이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겠다. 나와 교제하는 벗을 위해서, 나와

거래하는 손님을 위해서, 나와 인연있는
교민을 위해서, 나와같이 일하는 동료들
위해서, 나와 뜻을 같이한 동지를 위해서,
나와 운명을 같이한 우리 동포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주인공 박집사와 같이 충실한 종지기가
되어야한다. 내 안기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동료들, 손님을, 동포
를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물론
기만해서는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오직
사명을 다하는 참된 인간으로서, 봉사,
헌신하는 충실한 종지기가 되어야 함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보혜사 한방원

保 惠 師 漢 方 院

● 보약 ● 녹용 ● 우황청심환 ● 첩약

•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 대한침구사 협회장 포창장 수령
•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762-8566 762-6493

영업시간 : 당분간 평일은 오후5시~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오후9시

8107-22nd Ave. S.W.
Seattle 98106

치 질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희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
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 창 하
762-8566 762-6493

교포여권 갱신 발급에 관한 안내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압력촌 밖에 의하면, 82.7.1부터 동 공간
에서 교포여권 갱신 재발급을 시작한다 하는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 미대사관과 라성 총영사관만은 81.10.1 부터 이미 갱신
배발급 시작함)

1. 갱신재발급 기간 : 82. 7. 1 - 82. 7. 31.
2. 대 상 : 모든 영주권자
3. 구비서류
 - 가. 사진 2장 (여권용)
 - 나. 영주권 사본 앞.뒤면 각 1부
 - 다. 신청서 1부 (영사관에 있음)
 - 라. 구역권
 - 마. 수수료 : \$20.00(단, 기간이 지난 여권은 여권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에따라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추가됨)
4. 소요기간 : 약 2주일
5. 기탁 참고사항
 - 가. 82.7.1 - 82.7.31.내에 갱신재발급 받지 않은 여권은
무효 가됨.
 - 나.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사무실에서 동 신청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음.
 - 라. 신청서만을 Mail 로 원하시는분은 반송우표와 주소가 기재
된 봉투를 동봉하여 신청하시기바람.
 - 마. 우편으로 교포여권을 갱신 재발급 받고자하는분도 반송우표와
주소가 기재된 봉투를 동봉하여 신청바람.

목사의 고민과 진실

김동진 목사
(타고마 한인 루터 교회)

목수의 집에 칼로 막이 없다고 할 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고지들으려 하지 않는다. 대장 칼 집에 식칼이 하나 없었다고 할때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목수가 만졌다면 대패요, 목이요, 나무조각 일체인데, 그 까짓 칼로 막보다 더한것도 척척 만들어 낼수 있을텐데 하는 선입감에서 그렇고 보니 대장칼 집에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나 있어야 할것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갖추어야 할것이 갖추어져 있지아니할때 남이야 어떻게 평가하던 본인의 심정은 몹시도 괴로울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목사의 고민도 바로 이런것이라고 본다. 남들은 저분 정도라면 무언가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겠지하고 재로는 부러워도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 고민하던중 저분 성도만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줄로만 알고 그분을 찾아 숨김없이 문제를 털어 놓았다. 그저 듣고만 있던 그분이 아무말 않고 책

한편을 끄집어 내어 주면서 그 책속에 해답이 있다고 했다. 기뻐 반아 들었으나 집으로 갖고 돌아와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책은 바로 자기가 저술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목사의 경우 일주일에 두세번은 꼭 설교를 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식칼과 칼로 막이 없으면서 너희들은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된다면 목사의 진실성이 크게 문지시 되지 않을 수 없다.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안하고 하는 이런 진실성도 중요하겠지만, 자기의 소신과 신념은 꼭 배놓고 일방적인 강요에만 그친다면 목사의 진실성이 이런쪽면에서 고려되어져야 되리라 믿는다. 목사의 진실은 항상 신실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뿌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증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총으로 이웃에게까지 미쳐 나아가 영향력을 주름잡아 나아가야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된 이유부터가 선명해야만 그에게 있어서는 공지가 다르게 된다. 어떤 일이든 공지가 수반되지 않는한 그 일의 보람이나 참 뜻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허구 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왜 이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묻는다면 목사의 사명이 더욱 더 뚜렷해진다. 목사가게서 바라는 것이란 설교나 심방이라기보다 진실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목사를 오히려 더 바라고 있는것 같다. 이런 진실을 안고 살아 가는 목사의 경우, 그의 설교가 관혁의 정곡을 찌르게 될뿐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본다. 이렇기 위해서는 먼저 그는 목사만이 지니는 진실과 고민을 위해 더욱 애타해야 되리라 본다. 한 사람이라도 새 신자를 끌어들이, 수를 늘리는것도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 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앞서야 할일은 과연 내 몸이 지니야 할 무장부터 갖추고 있는지 곰곰히 타진함이 급선무라 하겠다. 전생태에 나가는 군인이 아무런 무장없이 일몰으로 뛰어 든다면 승패는 벌써 변한 일이다. 본선에서 어떻게 될것인가 보다는 진실과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끊어진다면 곧 생명줄이 잘라 버려지는 것과 같다. 끝까지 남을 자가 많지않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경고 하심도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장운걸 총영사 전임

이곳 주 시애틀 총영사관 초대 총영사로 재직하시던 장운걸 총영사께서 1987년 9월 28일자로 주 우루과이 특명전권대사로 전임 발령을 받아 지난 10월 10일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신장개업

PALACE RESTAURANT

포함식당

SEATTLE 최초의 수타국수 집

각종 북경식 중화요리

수타국수 전문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 오전11시30분~오후10시(연중무휴)

* 넓은 주차장 *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10분 거리)

723-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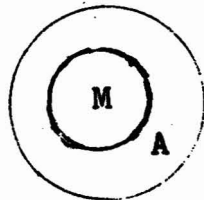
7119 Empire way So. Seattle 98118

主人 김원규 白

글 백 세현

1. 결국 나는 신()은 아니외다. 꽤 오래전에 논리학(Logics)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것이 생각난다.

「인간→동물」 :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이면 동물이다

A: Animal (동물)

M: Man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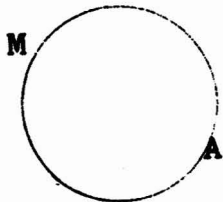
약간은 씹쓸한 맛이 있긴하나 도저히 부정할수 없는 진리에 꼭 박혀있음에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위 그림에서 M 을 자꾸 크게 그려서 A 를 꽉 채워 놓고 생각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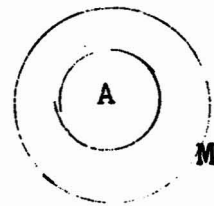
A 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A \geq M$

M (인간)은 기껏 커 봤자 A (동물)속에 결국은 속한다는 얘기다.



아직도 화가 안풀려서 이렇게 그려놓고 말았다.



「인간 → 동물」이란 말(명제)의 정 반대 얘기니까

「동물 → 인간」이 되고 만다.

: 모든 동물은 인간이다. 동물이면 다 인간이다.

즉, 돼지도 인간, 말도 인간, 뱀도 인간, 다시 말해서 돼지도 나 같고, 즉 나도 돼지 같고 이런 내용이 되고 마니 이런 창피한 대가 어디 있나.

결국은 나는 "인간 → 동물" 인간이면 동물이다." 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동물이다, 마는 무엇인가 동물이란 군상과는 어딘가 다른 무엇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2. 동물과 군집성 (.무리짓기)

우리가 T.V 를 통하여 동물의 사는 모습을 가끔 볼수 있다. 약한 종류의 것일수록 기를쓰고 모여 다니고, 모여서 산다. 왜 그럴까? 어린애들도 명백히 그 대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다.

첫째, 생명의 보호
둘째, 먹이를 얻기에 편리
셋째, 수 (Number)의 힘의 과시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동물 보다 낯기를 그렇게도 열망하는 인간들이 동물 만큼도 깨닫지 못하면 모르긴 몰라도 세상이 머잔아(멀지않아) 깨꾸로 될지도 모를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향, 타향 찾고, 무슨 동창회, 무슨 친목회 등등 수 많은 인간들의 모임(무리짓기)도 결국은 동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농경민(농사하는 국민)이나 유목민(떠돌면서 양떼 말떼 기르며 하는 민족)은 군집성이 대단하다. "잘 분리 된다" 든지 "왜 그렇게 분란이 끊일수 없는지?" 하는 입들은 대개 군집성이 강한 민족에게 잘 드러내어지는 얘기들이다.

한편, 호랑이나 사자등은 군집성이 매우 약하다. 군집의 필요를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엇비슷한 입들이 인간 사회에도 있음을 본다. 그렇지만 국민의 단결력, 국가에 협력하는 정신과는 별개의 문제다.

2. 나 . 한인

나는 성 (Family Name)이 백 (: 흰백)씨()다. 미국사람한테 발음 낼 때니 받아 써 보라 했더니 Piek(Pie k: 파이 + 크 - 꺾)라고 쓰고 말았다. 그래서 내 이민 서류는 백씨가 꺾씨 또는 피에크씨가 되고 말았다. 성을 바꾸고 이름이 John 이나 James 가 된다해도 우리는 한인이외다. 한인 이상도 될수 없고 한인 이하도 될수 없는 "나는 한인 이외다" 먹는것이 다르고 사는곳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나 나는 한인이외다. 어디를 가나 나는 한인일수 밖에 없는것이 나의 모습이다. 긴 세월이 흐른후, 까마득한 먼연 후일 내 후손들은 혹 모르지요. 다된 서양사람이 될지,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한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 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조상은 자랑스런 한인이었다"

한인회 주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부터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밭을 일구고 엉겅퀴, 잔들, 큰들을
굴라내고, 거름을 듬뿍 넣어서 말입니다.
이 준비하는 나는 미언 후일 자랑스런
미국인의 한 조상이 될테니까요.
인간이 인간됨은 그 처해있는 상황
(Situation) 에서 성의껏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할 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실패의 많은
경우는 행치 않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Yes (그렇습니다)
와 No (아니오) 를 정확히 하는데 있
습니다. 참인것은 Yes , 거짓인것
은 No 이것을 서슴없이 명백히 하는
인간은 결국은 동물 이상의 자질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3. 한인회 . 한인 . 나

한인.나. 는 모여서 무리짓고 이것을
한인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인회
는 나의 모임입니다. 한인회는 나 없이
는 있을 수 없는것이 되겠지요.
한인회의 가는 목표, 가는 힘의 방향은
나의 그것과 일치해야 되겠지요.

이런 한인회가 우리가 바라는 소박한, 단순
한, 투명한 모임일 것입니다.

혹 어떤분의 불찰로 불순한것 식일 수 도
있으며 때론 때와 티끌이 묻을 수도 있음
니다. 그러나 일시적인것을 영구적인것과
혼돈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저런 커다란 목표보다는 현실적이고 쓸모
있는것 한가지씩 실천하는 나의 한인회가
되길 바라고 있죠. 현재는 약자일 수 밖에
없으니깐 군집성이 강해야 되죠. 강해야
합 군집성이 되면 당하면, 나는 다른 군집
한때 올지못한 처국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
할 수도 있고, 감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안내, 각종 홍보활동 정도만 잘해주면
군집이 원하는 이유는 대개는 충족되리라
보아집니다. 나는 나 같은 한인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만든 한인회가 무럭무럭 자라
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원토록 단순하고, 투명하고, 소박하게
말입니다.

필자 : Western Electric Co.
in the Bell System 근무

이 창회 기념 장학생(1981년도) 모집

이 창회 선생의 뜻을 기르고져 1979년에 발족한 이창회 기념
장학회에서는 1981년도 장학생 6명(\$500씩 3명, \$250씩 3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동장학회 이사단에서 발표하였다. 현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생은 장학금신청서, 학교명, 전공
과목, 보조가 필요한 이유, 간단한 본인의 이력서등을 동장학회에 제출,
12월 15일까지 신청하기바라고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주소 에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소 : 10064 43rd Pl N.E. Seattle, WA. 98125

전화 : (206)525-0516, (206)641-5739, (206)778-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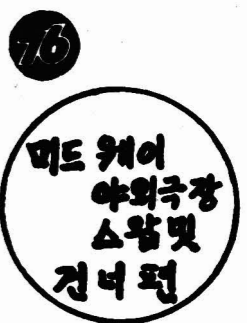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SERVICE (GAS) STATION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 ** 자동차 정비 일체
 -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 TIRES ** BATTERIES
- ** 도요다 닛산 혼다등 외국차 전문
 - 2월 부터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 을
역동적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심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 하고 있습니다.

김 명 훈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MIDWAY UNION 76

어느 교포의 뿌리

영 화랑 관 상 영

나는 1년전 우연히 교포 P 씨를 알았다. 그는 미국선배는 물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매사를 처리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겸손 할 수가 없어 아직도 한국의 예의를 잊지 않았구나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그저 열심히 어느 누구도 고인 못지 않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P 씨는 작년인가 시애틀 번두리에 조그마한 학원을 차리고 자기의 기지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었던 것이 경기침체에서 인지는 몰라도 그만 문을 닫고 직장을 구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잇그제 돌연해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매우 반가운 마음에 그를 맞이하고 보니 그후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했다한다. 그야말로 미국식이 아닌, 남의 일이 아닌 한국식 자기일로 시간이 지나도 남은 일을 끝내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로 일관했다한다. 그러기를 몇개월, 그에게는 과로에서 오는 작으나마한 병마가 찾아와 3개월을 쉬어야만 했다. 그간 회사측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보너스도 주고 갖가지 물질 심적 도움을 주었다. 물론 입주는 다시 완쾌된후 자기 회사에 나오기를 원했던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의 능력과 처리방법이 타의 모범이 됨을 인정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P 씨는 3개월 쉬는동안 타주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같이 일하기를 수차례

권유받아 타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회사를 방문, 작별인사를 드렸다. 이제 P 씨는 4일후면 긴여행에 임할 차비가 되어있었다. 그러던 출발 2일전 갑자기 회사측으로부터 그리 많지 않은 수표와 함께 간단한 메모에 "그간 매우 감사 했다. 언제고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여행에 보태 써 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행운을 빈다."

P 씨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P 씨는 이돈을 그렇게 쓸 수 없어 왔노라며, 한국 고유의 선물 하나 해 줄 것이 없느냐는 말에 나는 또한 그를 올려보았다. 그리 넉넉치도 못한 P 씨, 또한 2일후면 만날지 모르는 먼여행, 결코 그는 뿌리를 남겨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P 씨에게 당신의 미덕은 한국인으로서 어느 정권 못지않게 애국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교포사회에 종종 있는데 이것은 P 씨 자신보다는 교포 전체를 위한 일이고, 만약 어느 교포가 그 회사에 취직원서를 제출했을때 그 책임자의 얼굴표정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P 씨 생각을 하고 환영할까를

그후 P 씨는 값진 한국 고유의 동양화를 한점 가지고 나갔다. 그후 그는 먼 여로에 임했을 것이다.

모든 교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P 씨의 앞날에 행운을 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김 의 여 행 사

-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공인대리점
- ATC (미국항공운수협회) 공인대리점
- PATA (태평양지역 관광협회) 회원
- 가족초청 및 이민상담
- 각종 서류공증



- 모국방문
- 국내항공표

Advance Properties REALTOR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BUS: (206) 624-2227 / 624-2228

RES: (206) 364-9934

Kim's Travel Service — Room 619,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자 동 차 정 비

LEE'S NORTH CITY ARCO

- 모든 자동차의 일반정비 및.
- 부레이크 정비 특별 서비스.
- Good year tire 판매는 시중 어디 보담도 싸게 판매 합니다.

주소 : 1505 N.E. 175th street.
SEATTLE WA. 98155.

전화 : 364 - 9339.

대표 이 점 태



오로라 식품

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회보 지면을 통하여 고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오로라 식품 & 생선가게에서는 다가오는
 김장시즌과 월동준비를 위한 고포여러분
 들 가정에도움을 드리기 위해 모든 품목
 (김장 품목 포함)에 걸쳐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랜드 오픈을 세일기간으로 설정하여
 파격적인 세일처리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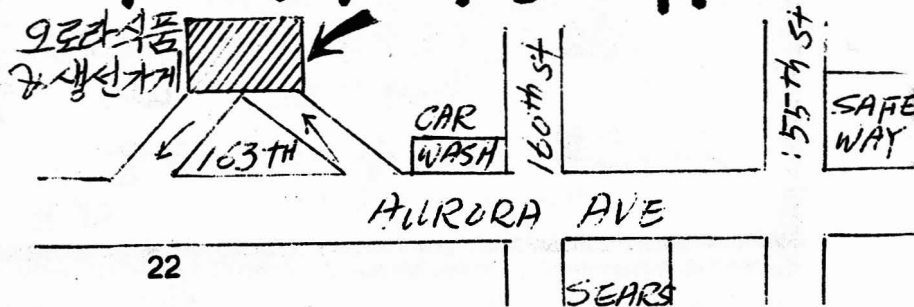
특히, 저희 가게의 자랑인 싱싱한 생선을
 권해 드립니다.

- * 파티용 사시미 일체 취급
- * 개업기념 특별 세일
- * 싱싱한 회갈항시 준비 고민들께 열가봉사.

언제 어디서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6300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542-6577



생활보험상식

BUSINESS OWNERS POLICY 란?

이커버를 보면 **Business Owners Policy**란?
 최근 고포들의 많은 Business Open 에터마
 Business insurance 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자.

보통 우리가 화재보험, 상업보험, 또는
 Commercial Insurance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국은 Business Owners Policy
 인 것이다.

Homeowners Insurance와 유사하나 Option

에 의해 원하는 Coverage 를 선택 할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Policy 를 적용 들면 대개 다음과 같다.

SEC. 1 Property Coverage

- Coverage A. Building (건물)
- " B. Business - (가게내 설비 및
 -Personal Property 상품)
- " C. Loss of - Income (Income 보상)

SEC. 2 Business Liability & Medical Payment

- Business Liability (Business로 인한
 Suit Coverage)
- Medical Payment (Business로 인한
 상해시 의료비)

SEC. 3 Optional

- Crime ; (Money Coverage)
- Exterior Sign ; (외부 간판)
- Interior Glass ; (외부 벽)

위에서 보듯이 1과 2는 Basic Policy
 이며 Option에 따라 도난, 강도, 유괴등을
 정해진 금액에 따라 Premium 을 더함으로써
 포함 시킬수 있다. 계약은 보통 1년 단
 위도 하며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른 가
 격 차이가 많이 나또 물건을 사듯이
 계약만도 기간 1달 전쯤에 Shopping 해
 보는 것이 절약 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고민들께 알려드립니다."

고포 음악인들이 모여서 음악활동을
 통하여 고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미국사회에 음악을 사랑하는 전통
 있는 문화인의 긍지를 보여주며 나아가
 장래성이 있는 후진들을 이끌어주는
 목적으로 제/회를 개최한바 있는 한국
 가곡의 밤이 이곳 WASHINGTON에서 음악인
 동우회 주최로 작년에 이어 그 두번째인
 제2회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하게 되어
 고포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부디 오셔서 잠시나마 방향의 새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1년 11월 2일(토) 오후 7시
 장소: U of W HUB 내 Music Auditor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 (206) 767-7934

이상과 감정이 무뎠어져버린 이제 그나마도 간간히 솟아나는 어릴적의 추억, 그것은 이제 삼남매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현실에 있어서도 얼마나 다행한 연결인가 그의 귀중함에 마음이 선뜻해 질적이 간혹 있습니다.

호랑나비가 되어 푸른참공과 대륙의 대자연에 황제의 위엄을 갖어 불럭고 한 적도 있고 심심산천 깊은 계곡 바위 밑에서 소리없이 청초히 피어나서 이끼끼 바위사이를 즐즐히 흘러내리는 초롱초롱히 맑은물과 끝없이 대화를 나누며 영원토록 살고 싶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밤 추위에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과 겨울내내 은돌방에서 네져 한숨 못이룬 고심 뒷쪽 구석 참가의 그 친구 책상에 몰래 갖다놓은 얼어보지 않은 나의 도시락을 흘깃흘깃 그 친구의 자태를 마음조이며 남몰래 훑쳐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님 속 옷속에 감추어 두었던 군밤 2개와 때가 즐즐 묻은 한 개의 사탕이 남이 볼까 몰래 고사리같은 내 손에 쥐어질때 이 세상에는 꼭 나 하나 밖에는 존재치 않을 것 같은 당연한 의연감, 그래서 마음속에 꼭 집어 말 할수 없는

따뜻하고 고요한 파도가 일었던것, 노쇠하시어 입그러진 안면이나 주들주들한 손의 피부에 아랑곳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훌륭한 우리할머니를 향해라면 가차없이 가슴을 확 피고 어기를 으씩대며 종로 내거리라도 활보할것같은 마음, 얼마 후에는 돌아가셔야만했던 그 할머니의 마음은 호랑나비나 또는 심심산천의 청초한 한가지의 꽃을 향해 대가의 여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한껏 주어졌읍니다.

자정이 넘은 고요한 겨울밤 창 밖에서 소곳소곳 내리는 흰 눈송이의 잔미의 함참과 함께 할머니님이 당겨서 꼭꼭 가장 사리를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속으로 애정의 따뜻함이 넘치도록 쌓입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나의 성장이 있었고 현실이 있기에 나의 애기들이 있습니다. 나의 애기들을 쳐다봅니다. 십여해의 연륜이 지난 그 애기들을 쳐다보는 내 마음은 역시 방금 태어나서 처음 안아본 마음과 항시 다를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를 안어야 될런지도 무지 만져진 손길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어디를 만져도 그 애기는 도무지 편안치 않을것같고 아퍼할거 같아 불안과 편치않은 마음으로 손둘레를 모르고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기의 입에서 어느날 청천벽력 과 같은 뇌성이 이 아버지의 마음 전신을

아래위로 또는 좌우로 마구 사정없이 때려치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아저씨 있잖아, 왜 낙시질이랑 조개잡이랑 같이 갔던 아저씨, 그 아저씨 왜 요즈음 우리 집에 안 와? 나의 얼굴이 몹시 불쌍한 형태가 되고 말았읍니다.

내용인즉 자주 왕래하던 본의 가족이 애기 생각건대 한동안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것입니다. 물론 기성인(?)답게 "그 아저씨네" 하며 거짓말로 대답을 줄 수 있었겠지요. 무언가 곱씹던 아버지의 제일 추한 단면을 보여준것 같아 마음이 두근 거립니다. 결코 애기애기까지 변명을 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들춰서 말해준다는것이 유쾌한 일일까요?

지금 애기는 한참 호랑나비가 되고도 싶고 심심산천의 계곡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 청초한 꽃이 되고도 싶고 아버지가 주는 2개의 군밤과 사랑의 추억이 새겨져야되고 눈노는 추운 겨울밤 일부러 걸어 찬 이불을 두고 자는척 할때 조용히 다가와서 목까지 덮어주고 조용히 문을닫고 나가는 아버지의 자상함을 자꾸 자꾸 조각할려고 할것입니다.

애기들의 손을잡고 십자가의 형을 가슴에 그리며, 성당에 들어서는 아버지의 진지합력하고 성스럽게 보여지고 자하는 태도를 어떤때는 잔뜩이 내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싶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영세 에퀴터블보험



●전미국 3대 보험회사
●최우수 배당금 실적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보험,
- 건강보험,
- 상업보험



1. 장기적금과 생명보험과 퇴직금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
 2. 값도 싸고 혜택과 서비스가 좋은 **자동차보험**

사무실624-8380 집365-0085 (시애틀)

※ 보험대리인 모집

치과 전문의 조병규

진료시간 : 9AM ~ 6PM (월~토)

주소 : 215 N. 125th ST
SEATTLE. 98133

전화: OFF 367-5570

RES 776-8512

가장 멋이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양식이 훌륭하노라는 양 애기들 앞에서 호들갑 떠는 그 구구절절 행동이 그냥 마냥 유쾌한 것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 갓어보는 회의와 반성의 반쪽에서 그다지 훌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안간힘쓰는 이 아버지는 항상 애기들 에겐 방어의 편이 되어 전전긍긍합니다. 애기들 에겐 가식과 꾸밈이 없습니다. 아버지 같이 번지르르하게 기름칠 치어 윤이 나는 대화의 멋이 없습니다. 아주 저질적이고 유치한 말을 가장 쉽게 또는 장소와 때의 지배를 용케도 무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냥 애기들은 "짓"을 합니다. 그토록 졸렬한 대화의 "짓", 짜임새 되어있지 않은 허트러진 자세 "짓", 잡 흡수되어 잘 떠어노는 "짓" 그 외에도 "....짓", "짓", 헤아릴수 없는 애기들의 짓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가르쳐 이 아버지는 "짓"이라는 대명사를 씩게도 사용합니다.

기억을 되새겨가며 옛날 이 아바가 애기였을때의 추억을 다시 새겨봅니다. "출고 배고픈 불쌍한 친구에게 너의 도시락을

주라"고 하는 교과서 읽어본 기억없습니다. 사랑 1개와 2개의 군밤을 합치는 대답이 따뜻하고 고요한 파도가 될 것이라는 화학기호 배원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행동도 했고 마음대로 화학의 기호도 지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애기들도 예외는 결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애기들앞에 이 아버지는 가끔 눈치를 보는 열세에 공공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살피며 멋(?)진 대화와 태도를 연속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어주는 내 애기의 입에서 "아버지, 그때 그 아저씨 있잖아 왜 나시잖이랑, 조개잖이랑 같이 갔던 아저씨, 그 아저씨 왜 우리집에 안 와..." 라고 물을 때, "....."

나에게도 옛날이 있었었습니다. 미쳐 때 묻지 않은 천진이 있었었습니다.

결코 내 애기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대답해 준다는것도 더욱 더 안됩니다. 바로 그 사실이란 서로의 존경과 신뢰의 차이적 단견이었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한인회관을 건립합시다

정문언 종합 보험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GOOD STUDENT DISCOUNT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 NON 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Bus) (206) 523-9111
(Res) (206) 523-8944

Moon Choung Agency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 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 325-5032 RES : 367-1534




shoreline graphics

LAKE CITY SHOPPING CENTER
3008 N. E. 127th Street • Seattle, WA 98125
Telephone: 364-6632

Business Hours
Mon.-Fri. 8:30-6:00
Sat. 10:30-3:00

(약도)



인쇄

서한용지 투합장
봉명안침 내첩 양식
각종 양식 (Carbonless)
기타 인쇄

청사진

BLACKLINE
BLUELINE
SEPIA
MYLAR
XEROX Copies

문구류

각종 사무용품
제도 용품
미술 용품

새로 사무실을 차리시는 분에게는 책상등 사무용비품과 각종기기 및 용품을 Package Deal로 특별 할인 봉사 하겠습니다.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 발족

약 3년전부터 뜻있는 각교회의 평신도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순수한 평신도들의 모임이 가져보지는 움직임이 있었던바, 지난 9월 13일 씨애틀 한인형제교회에서 그 최종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모든 와싱턴주 교단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회 취지는 주내 각교회 신도들의 영적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간의 친선을 강화하며 교포사회를 복음화하는 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반교포사회에도 기여할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있었던 창립총회에서 12개 교회 73명의 평신도들이 참석했는데 초대회장은 한인장로교 선교교회 김병섭장로, 부회장은 씨애틀 형제교회 박진호장로와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이영호장로, 총무에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의 이상진장로, 서기에는 침례교회의 황선규집사, 회계에는 연합장로교회교회의 조순옥장로. 감사에 씨애틀 연합장로교회 오준걸장로, 씨애틀 평강장로교회의 송금봉장로, 그리고 부서기에는 웨드람 선교교회의 김재옥장로와 부회계에는 에벡렛 한인교회의 윤병설집사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그밖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부장 권순보장로 씨애틀 한인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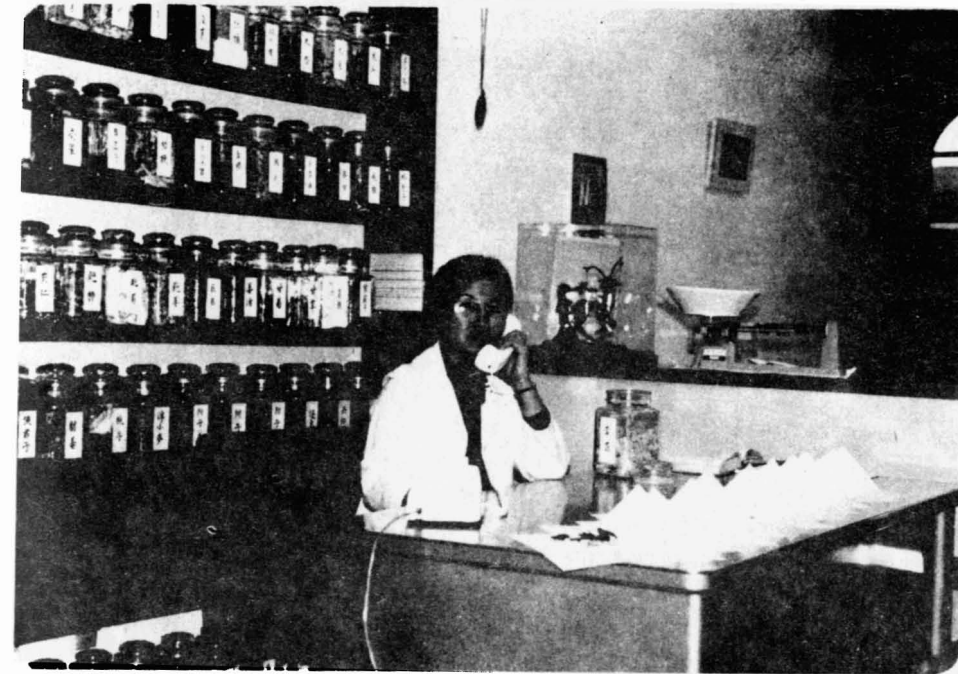
- 교육부장 김시복장로 타코마 중앙교회
- 원호부장 김명환장로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 섭외부장 윤한복집사 씨애틀 성복음 성결교회
- 신고부장 윤희희집사 타코마 선교교회
- 홍보출판부장 김고선장로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편집후기

어느덧 81년의 해도 한달 반 남짓 남게놓고 보니 세월의 흐름이 바라는 것을 재삼 느껴진다. 벌써 이곳 샤피그 센터에는 연말연시의 상징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짙어내게하는 물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호주머니는 텅텅비고 마음은 이것저것 하고 싶으니 이거 정말 우짜꼬, 사람 환장하겠네, 애타는 딱 잡고 지나가 버릴까?

이번호 발간에 있어서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특자를 쳐주신 미쓰정 의 노고에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감사할 뿐 하면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원고와 광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와 많은 고민들의 손길이 자주 닿았으면 하는 서운한 아쉬움 속에서 편집을 끝냈다.

제 일 한 방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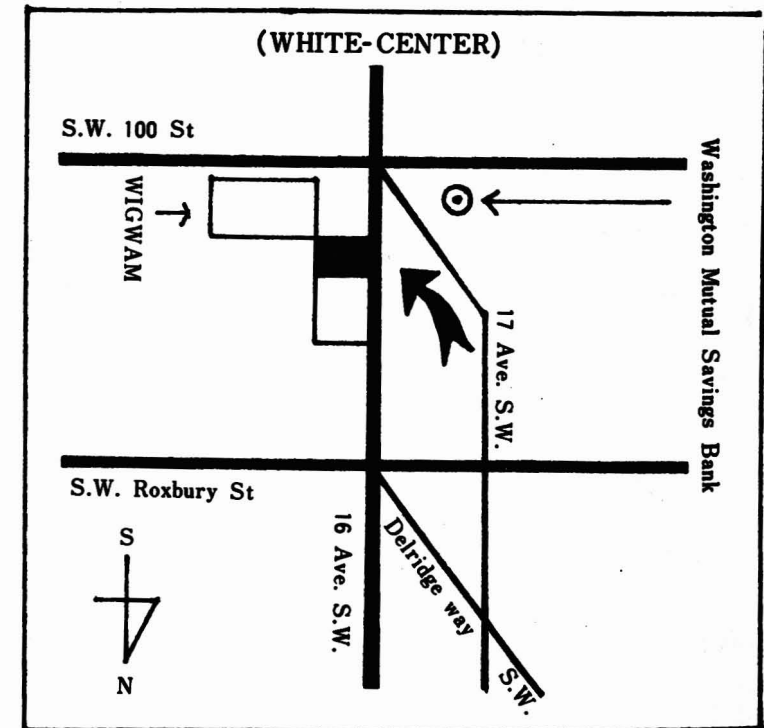
대표 이명심

- ※ 심한 권태와 피로가 오십니까?
- ※ 정신적으로 초조하고 불안 하십니까?
- ※ 식욕이 없고 항상 몸이 나른 하십니까?
- ※ 몸이 추시고 저리고 아프십니까?
- ※ 살이 쪼서 고민이 되십니까?

★ 500여종의 가장 질이 좋은 한방 재료를 구비해 놓고,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정성을 기울여 당신의 건강을 돕고져 합니다.

- 고국에서 20년간 한방원 경영
- 1975년 한미침구사회 창립자겸 부회장
- 가주 연합침구사회 이사
- 가주 침구사 면허 67번 소지
- L.A. 동양 종합 의료원 침구과 담당
- L.A. 제일 침술원 원장
- 현재 제일 한방원 2년간 개업중

영업시간 : 평일 7시~6시
토요일 1시~5시
전화 : Bus. 762-9695
Res. 483-8136
주소 : 9832 16th Ave. S.W.
Seattle, WA 98106



약도

본점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그랜드 식품

점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나 날이 발전하는 시에들 코면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욱의 맛을 성실히 전해 드릴수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하읍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常



감사 하읍니다
 결비와 물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 합니다."

인삼코너

情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725 S.W. Roxbury Street, Seattle, WA 98106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